



'힘내라 대한민국' 순천만 희망메시지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에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와 코로나19 극복을 희망하는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글귀가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담아 희망농업단지에 이 같은 메시지를 담은 '친환경 경관농업'을 추진했다. <순천시 제공>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항 율촌 용·복합물류단지 조성

예타 통과... 326만㎡ 6061억 투입 10월부터 실시설계 등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율촌 용·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조감도>

14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율촌 용·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광양항 3단계 준설도 투기장 항만 재개발 사업대상지 326만㎡에 미래 신소재 및 복합 첨단 산업, 복합 물류·제조 등의 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와 공사가 실시협약을 체결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수부는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해수부는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장 내 폐수중 말처리장, 배수지 및 배수관로, 연결교량 등의 지원 시설 구축을 위해 지난해 4월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며 8월 말 통과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총 사업비는 국비 875억원을 포함해 6061억원으로 산정됐다.

공사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재해·교통 영향평가 등 사업을 위한 각종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사업의 성공을 위해 주민 공청회, 투자유치 설명회 등 지역 및 시민, 기업과 함께하는 활동도 펼친다. 공사는 지난 7월 열린 '제11회 여수·광양항 국제 포럼'에서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 가는 길 위에서 여수·광양항이 중국, 러시아, 유럽 대륙으로 뻗어 나가는 'Y-Route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계획 추진에 따라 광양항은 '산업중핵기지(Industrial Core) 항만'으로 성장하게 된다.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율촌 용·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산업중핵기지항만' 구축의 시작점으로, 지속적으로 항만 배후부지 개발을 추진해 광양항을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휠체어 탄 의원들 "곳곳이 아찔"

여수시의회 무장애도시정책연구회, 장애인 교통환경 점검해보니

시의회~미관광장 1km 진땀 운행 3cm 턱에 막히고 블럭에 채이고 승강장 턱 안맞아 버스 탑승 못해 교통약자 조례·장벽 허물기 전개



여수시의회 무장애도시정책연구회 소속 민덕희·나현수·강현태 의원이 여수시 여서동 미관광장에서 휠체어 체험을 통해 무장애 도로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제공>

지난 9일 오후 여수시 여서동 시의회 앞 버스승강장, 여수시의회 민덕희·나현수·강현태 의원 등 3명이 휠체어를 타고 장애 점검에 나섰다.

이들이 저상버스 승강장까지 약 1km 구간을 지나는데 동안 사각형 인도 경계석 턱들이 휠체어를 번번이 가로막았다. 높다란 턱에 인도 진입이 막힌 휠체어는 방향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며 넘어질 뻔했다. 만약 넘어졌다면 머리 등을 다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도로와 인도를 잇는 경계석 턱 높이는 현행 도로법상 3cm 이하이지만, 의원들이 탄 휠체어는 이를 넘을 수 없었다. 결국 동료 의원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턱을 넘었지만, 이후에도 버스승강장까지는 20곳에 달하는 장애물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가까스로 승강장에 도착했지만 의원들은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에 탑승할 수 없었다. 탑승리프트가 연결되는 승강장 턱이 맞지 않아 버스 탑승이 불가능했다.

여수시의회 무장애도시 정책연구회 소속 의원들의 장애 점검 결과, 여수시가 시내버스승강장 등 장애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불편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

처음 맞닿은 걸림돌은 인도에 설치된 경계석이였다.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장애인들에게는 휠체어의 방향을 틀어야 하는 장애물이였다.

또 자전거전용도로와 사람통행로로 구분된 인도에서 자전거와 행인을 마주칠 경우 휠체어 방향이 명확치 않아 당황스러웠다.

버스승강장의 경우 교통약자가 실제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에 탑승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진출입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무장애도시 정책연구회는 이같은 불편사항을 곧바로 여수시에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협의 중이다. 연구회는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여수시 자체 'BF(Barrier Free)' 인증 가능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이 연구회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목표로 5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민덕희 무장애도시연구회 대표의원은 "짧은 시간 점검이었지만 온 몸이 힘이 들어가고 턱에 걸려 넘어질 위험에 아찔했는데 그동안 장애인들은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었는지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주요 구간별 보행환경 개선은 물론 '보편복지 무장애도시'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구례 수해 폐기물 6만여t...처리비만 213억

연말까지 위탁처리

1800억원대수재를입은 구례군이 수해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에만 200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달 8-9일 폭우로 발생한 폐기물이 총 6만여t로 집계됐다.

이 중 침수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3만여t으로 전체 발생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 폐비닐 등 농경지 폐기물과 섬진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하천쓰레기가 약 30%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동물사체 등 지정 폐기물이다.

처리비용은 1t당 33만원으로 총 213억원에 달하며,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폐기물은 구례읍과 문척면, 광의면 등에 설치된 임시야적장 3곳에 모아 반출하고 있으며, 병해충 발생을 막기 위해 매일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에는 전국의 14개 민간 폐기물처리업



구례군은 지난달 8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로 폐기물 6만여t이 발생해 처리비용만 2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체가 참여해 지난 13일 현재 2000여t이 반출됐으며,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일부 주민들은 섬진강 중류인 구례지역에 하천쓰레기가 많은 이유는 문척면 옛 다리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구례군 문척면 A씨는 "구례 하천쓰레기는 섬진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부유물이 중류인 문척 옛다리 등에 걸려 쌓이기 때문"이라며 "홍수만 나면 침수되는 문척 옛다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